

보도자료

2026. 06. 16.(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전파통신AX본부 AI특화망사업팀 황태욱 팀장 (061) 350-1454
배 포 : 경영기획본부 ESG혁신홍보팀 최근수 대리 (061) 350-132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공지능 전환(AI) 산업에 5세대(5G) 특화망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학술 토론회(세미나)·상담컨설팅 운영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와 함께 인공지능 전환(AI)의 핵심 기반 시설(인프라)인 5세대(5G) 특화망이 산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전 산업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전환(AI)+5세대(5G) 특화망 융합 학술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5세대(5G) 특화망(이음5G)은 건물이나 토지 등 특정 구역에서 전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통신망(네트워크)으로, 최근 인공지능 전환(AI)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특화망 확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기업들이 밀집한 주요 산업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지역별 특화 산업에 최적화된 도입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상담(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첫 번째 학술 토론회(세미나)는 6월 16일(화) 14시 창원 국가 산업 단지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토론회(세미나)는 동남권의 특화 산업인 정밀 제조 및 방위 산업 분야를 주제로 하며, 기업 인공지능 전환(AI)을 위한 특화망 도입을 희망하는 지역 기업들을 위해 관련 제도와 구축 사례를 소개한다. 주요 발표 참여 기관 및 기업으로는 ▲(주)스맥 ▲(주)LG전자 ▲(주)이루온 ▲미라콤아이엔씨(주)가 참여하여 각 분야별 인공지능 전환(AI) 해결책(솔루션)과 특화망 적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이번 창원 학술 토론회(세미나)를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산업 단지를 방문하며 특화망 확산을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7월 9일 광주에서는 로봇 및 첨단 제조 등 서남권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2차 학술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하고, 7월 중 대면(오프라인) 참여가 어려운 전국 산업 단지 기업들을 위해 화상 토론회(웨비나, 온라인 세미나)를 열어 특화망 도입을 위한 필수 입문 안내서(가이드)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8월과 9월에는 전북 및 대구 국가 산업 단지를 방문하여 지역 주력 산업에 특화된 맞춤형 도입 상담(컨설팅)을 수행한다.

이어 9월 1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종합 학술 토론회(세미나)는 ‘제3회 특화망 기술 산업전(PNT FAIR)’과 연계하여 개최하며, 이 학술 토론회(세미나)에서는 전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와 ‘실체형 인공지능(피지컬 AI)’ 시대의 특화망 역할을 심도 있게 다루며, 5세대(5G) 특화망 실증 사업 성과와 보안 안내서(가이드)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전 산업 분야가 인공지능 전환(AX)으로 진화하는 전환기에 5세대(5G) 특화망 등 디지털 기반 시설(인프라)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라며, “지역 산업별 맞춤 지원과 현장 밀착형 상담(컨설팅)을 통해 수요 기업의 기술적 부담을 해소하고, 특화망 기반의 혁신 성과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